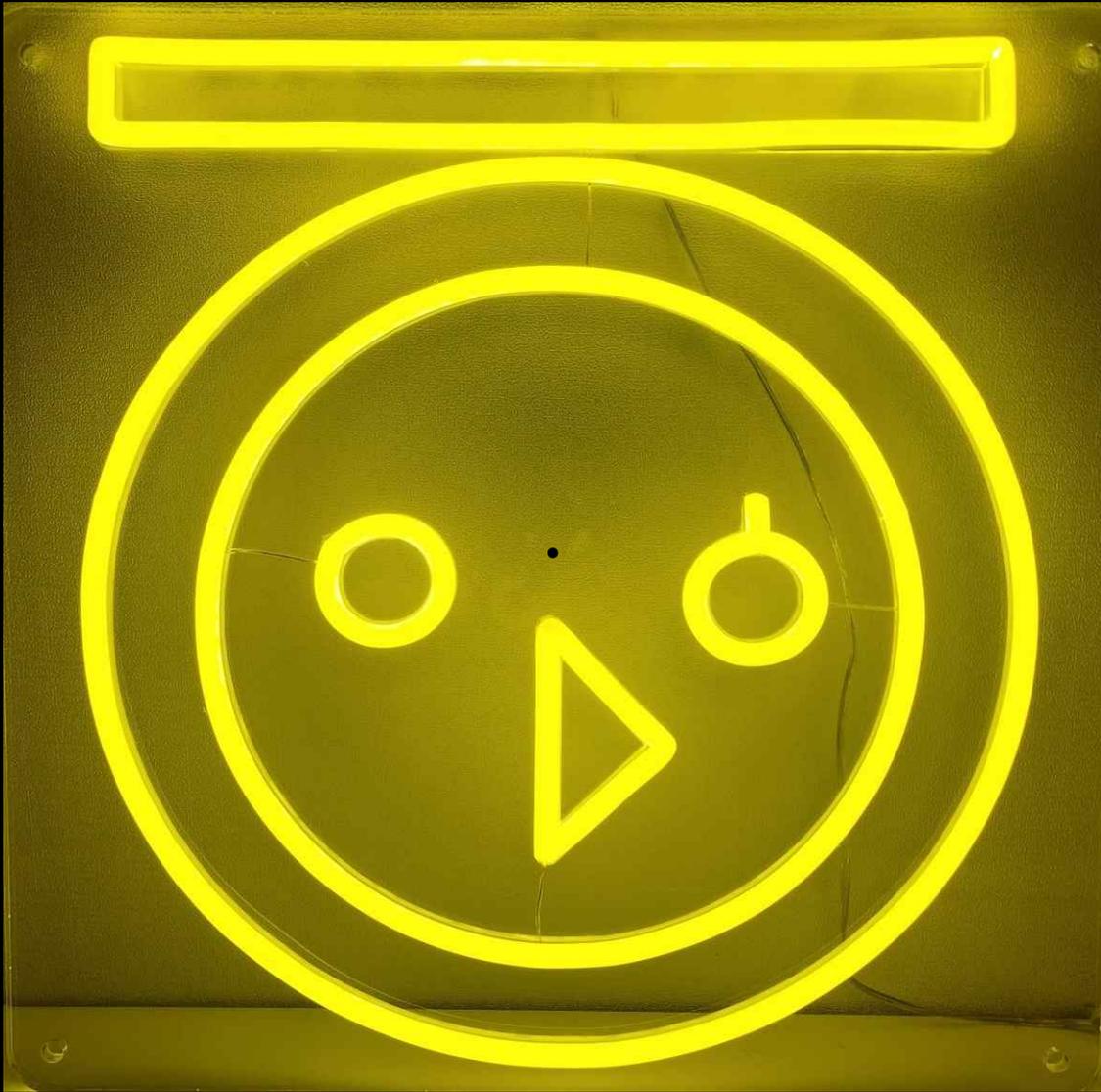


INSIDE-OUT



이채론 큰글아이

Contents

- INSIDE 세종지역학센터 소식
- OUT 칼럼 _이채론
- 본아트컴퍼니
- 부록

12

월

2024 제5회 세종학 포럼 개최

시민과 함께 '세종시 역사문화자원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열린 토론

- 때 : 2024년 11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 곳 : 해밀동 행복누리터 B동 문화관람실
- 주제 : 역사문화자원의 현재와 미래
- 발제 : 김양식 교수(청주대학교) '세종시를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과 장소'
윤철원 부원장(세종문화원) '추운실기를 통해 본 세종시 근현대사'
태지호 교수(안동대학교) '세종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본 포럼에서는 세종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종시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서는 세종시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디지털 헤리티지 활용, 박물관 중심의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창조적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종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깊은 토론을 위해 시민전문패널이 참여하였는데, 참여한 시민전문패널은 세종 시민대학 집현전 대제학(박사), 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한국학 전공 교수 배준영 교수님 외 고려대학교 재학생, 세종향토사연구소, 소담고등학교 김효민 학생이다. 이는 세종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였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세종지역학센터는 세종시의 역사문화자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장소를 기반으로 한 Dance Film <불휘>를 제작하여 상영하기도 하였다.



2024년

제5회 세종학 포럼

'역사문화자원의 현재와 미래'

2024. 11. 7.(목) 오후 1시 30분

해밀동 행복누리터 (북관커뮤니티센터) B동 문화관람실 (세종 해밀로 45)

전체사회 이재민 센터장(세종지역학센터)

구분	시간	내용
식전행사	13:30 - 14:00	30' ·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및 기념촬영
	14:00 - 14:30	30' · 기조 강연 : 세종시에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과 장소 - 김양식 교수(청주대학교)
	14:30 - 15:00	30' · 주제 발제 1 : 지역사적 관점에서 본 세종시에 흐르는 역사 - 윤철원 부원장(세종문화원)
	15:00 - 15:30	30' · 주제 발제 2 : 세종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과 전략 - 태지호 교수(안동대학교)
	15:30 - 15:50	20' · 휴식(세종지역학 가을 세미나 영상) 및 다음 세션 준비
본행사	15:50 - 16:20	30' · 종합토론 : 세종시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과 활용 방안 - 고순영 소장(지역영사문화연구소) - 박영민 연구위원(한국교육문화진흥원) - 안형기 실장(한국고고총연합회) - 신홍원 교수(안동대학교) - 이재민 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16:20 - 16:50	30' · 열린 대화 - 시민, 관내 청소년과 함께
마무리	16:50 - 17:00	10' · 폐회사

주관·주최 : 세종문화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세종지역학센터_분과회의

개요

- 때 : 2024년 10월 22일 오후 4시
- 곳 : 세종연구실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임재일 위원장(사회문화예술연구소 소장), 김갑동 위원(전 대전대학교 교수), 임덕수 위원(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박정언 위원(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강병수 위원(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최광 위원(세종문학, 조치원 작은 도서관), 조성환 위원(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세종지회장), 이재민 센터장(세종지역학센터), 임수정(위촉연구원)

2024년 세종지역학센터 활동 공유 및 세종지역학센터의 역할과 방향성 논의 내용

-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지역학 활동을 강조
- 신도시 주민들이 외부에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아 세종시의 역사, 문화, 예술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 필요
-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역학을 기반으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금강의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
- 세종시 명칭 선정 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
- 세종지역학센터는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문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
- 세종시가 왜 ‘세종’으로 명명되었는지 그 개념을 정립하여 지역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방법을 고민



대구경북-세종지역학 세미나 및 MOU 추진

행사개요

- 때 : 2024년 12월 20일(금)-21일(토) , 2일간
- 곳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대회의실 (세종 한누리대로 1966, 로이즈타워 8층) 및 지역탐방(대통령기록관, 조치원문화정원, PAL 뮤지엄샵, 리리디자인)
- 주관주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지역학센터, 대구정책연구원, 대구경북학회
- 추진목적 : 지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대구정책연구원, 대구경북학회, 세종지역학센터 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교육 및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학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문자와 이미지, 오묘함의 경계에서 ‘한글’로 예술 하기

글_이체론(문화예술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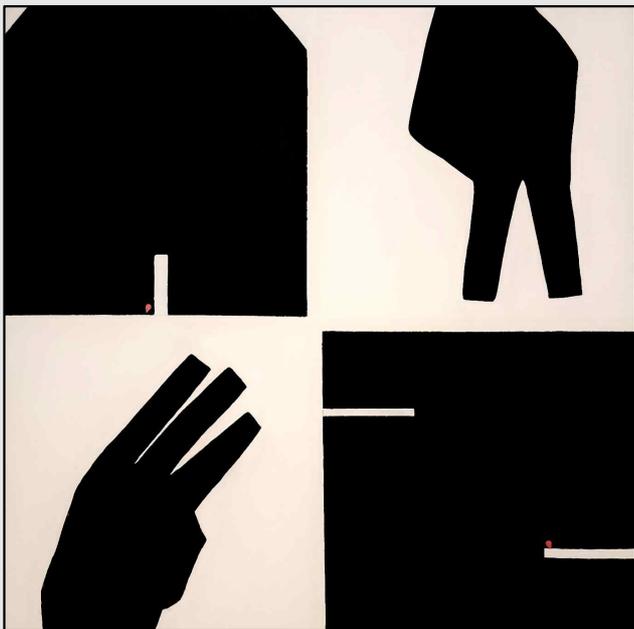
2024년 세종은 2012년 출범 이래 ‘한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한글’에 초집중 중이다. 올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세종시는 그동안 꾸준히 ‘한글’과 관련한 행사와 포럼, 정책 이야기 등을 시민과 전문가들을 동반하여 노력해 왔다. 세종시의 예술 단체들 역시 ‘한글’과 관련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글 기획전을 꾸려왔으며, 올해는 <세계를 잇는 한글 문화도시, 세종>이라는 타이틀 아래 기획전을 대규모로 추진하였다. (사)한국미술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에서도 <나랏말싸美>展을 1, 2부로 구성해 세종시청 1층에서 진행하였다. 1부에서 ‘한글’을 주제로 40여 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개성을 통해 ‘한글’을 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어 세종 예총에서도 <세종, 용비어천!>이라는 행사를 통해 공연과 전시를 풍성하게 꾸렸다. 세종시는 그 어느 때보다 ‘한글’과 관련한 ‘꺼리’가 넘실대고 있다.



그렇다면 ‘한글’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에 부여되는 시점에서 과연 지역 예술가들은 어떻게 ‘한글’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 예술의 정의만큼이나 광범위하고 난감한 주제다. 어차피 어려운 주제인 만큼 신묘하고 애매한 문장으로 글을 시작한다면 어떨까.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술을 할 수는 없다.”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을 내게 접목해 풀어나간다면, 누군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지금 예술하고 있습니까?”, “...음...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뭔가가 내게는 예술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아무나’일 수 있다. 나의 사유와 표현이 시대의 예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구나’는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뭔가’가 예술인지 아닌지는 개방형이다. 물론 사회적 제도 안에서 미술을 전공한 나는 ‘예술’이라는 포장지는 받아두었다. 나의 ‘뭔가’를 이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은 내 몫이다. 그러나 큰 의미가 있는 행위일지는 의문이다. 포장지가 찢어져도 드러나는 ‘뭔가’가 중요하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누구나’의 ‘뭔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수월한 시대다. 이 시대의 흐름이 뒤상이 변기를 <샘(1917)>으로 부르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앤디 워홀이 <브릴로 박스(Brillo Box)>(1964)로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서서히 예술은 보통의 사람들 곁에 머물기로 결심한 것 같다. 예술의 기원이 그러했듯이 예술은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니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난 현대인은 얼마나 행운인가. 특히 ‘나’라는 개인의 다양성은 얼마나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파생시킬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다.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개인 SNS, Youtube Shorts, 인스타그램 릴스 등만 봐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처럼 팽창하고 있다.



이해하려는 진심(2024) 이채론



밥한번(2022) 이채론

작가로서 ‘나’의 ‘뭔가’ 역시 거창한 것이 아니다. ‘흔한 이야기’다. 그렇기에 소소한 일기가 될 수도 있고 보편적인 공감의 연대 혹은 근원적인 개인의 욕망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문자를 담보하기에 나는 ‘흔한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문자와 이미지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 그러다 세종시에서 ‘한글’이 본격적인 화두가 되면서 나의 ‘뭔가’는 다소 당황스러운 어려움에 당면했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작가로서 회의감이 불쑥 든다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적 연대와 교류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작가들이 일관적으로 ‘한글’에 매몰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말이다.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나를 포함) 지역 예술가들은 한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섬세한 촉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한 도시, 특히 ‘세종시’에서 ‘한글’로 예술 하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아주 쉽게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역 작가 중 한글 서예가를 제외한다면 애초에 ‘나’의 ‘뭔가’가 ‘한글’이었던 작가가 몇 이나 될까. 작품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의 세계가 확실한 작가들은 외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한글’의 위대함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고, 이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이다. 이제 우리는 노벨문학상의 원서가 ‘한글’이 된 2024년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다양성의 혼돈과 질서 안에서 ‘나’의 ‘뭔가’를 개성으로 표출하는 예술의 관점에서 모든 백성에게 소통의 빛이 되기 위해 창제된 ‘한글’은 누군가가 독차지하는 ‘나’만의 ‘뭔가’ 즉, 개성이 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말랄라(2024) 이채론

이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한글’을 나의 ‘뭔가’로 하고자 하는 무모한 작가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숙명이다. 적어도 ‘한글’의 자음, 모음만을 나열하거나 일관적인 붓글씨를 나열하는 양상을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획일성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일단 ‘문자’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한글이 조형적으로 빠져나고 도상적이라 그 자체로 이미지가 될 수 있다 할 지라도 ‘문자’를 넘어선 ‘한글’만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그 형상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는 이를 득의망상(得意忘象)이라 한다.

그렇기에 오히려 고루할 수 있는 ‘한글 서예사’가 조형적 기초 공사로서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근대 이후 ‘문자 추상’과 현대 미술의 개념적인 창의적 발상이 필요해질 것이다.

‘서화동원(書畫同原)’이라는 사상도 있고, 비트겐슈타인이 ‘그림은 언어’라고 말한 것처럼 문자와 이미지, 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 신묘하고 오묘한 경계에서 ‘한글’로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뭔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뭔가’가 빠진 상태로 ‘한글’을 마주한 예술은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을 것이고 문화도 되지 못한다.

예술인들의 적절하고 견고한 예술적 실천을 위해...

이채론(문화예술학 박사)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기획전공 문화예술학 박사
- 수묵콘텐츠연구소 먹갈기좋은날 대표
- 대전세종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춤 매개로 세종시민과 소통하는 무용예술단체 ‘본아트컴퍼니’

세종시를 중심으로 무용활동을 하고 있는 본아트컴퍼니는 “‘춤’ 본 때의 본보기를 보여주자!”는 취지로 설립된 민간예술단체이다.

2013년 창단 이래 정진 예술감독과 김주현 대표를 필두로 예술성을 갖춘 현대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안무가들이 세종시 본아트컴퍼니에 모였다.



본아트컴퍼니에 모인 무용 예술가들은 춤을 통해 지역 세대를 아울러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관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술 장르 중 무용은 난해하다는 이유로 대중화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본아트컴퍼니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보이, 미디어, 극, 문학, 미술 등을 작품에 융합하여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대무용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본아트컴퍼니의 활동은 제8회 세종무용제, 세종영화이야기, 세종 그리고 이응 함께 춤 외 지역 국악단체 ‘풍류’와 협업 등이 있다. 그리고 오는 12월에는 ‘세종 빛 축제’에도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체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결을 강조하며, 예술을 통해 지역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춤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열 보이는 작품으로는 댄스컬 <산타동화 크리스할로. WIN>이 있다. 본 작품은 2023년 대전문화관광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분야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되어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댄스컬 <산타동화 크리스할로. WIN>은 연말이 되면 세종 지역을 넘어 예산군, 강화군, 파주시 등 타 지역에서 초청을 받는 인기있는 작품이다. 오는 24일 ‘세종 빛 축제’ 크리스마스 이브 세션에서 재공연 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동아작가의 나레이션과 화려한 영상을 활용하여 어린아이들에게는 오감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느끼게 하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무용작품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문화살롱 석가현의 주관으로 진행된 ‘세종 그리고 이응 함께 춤판’에서는 작품 <Color Full Run> 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세종 그리고 이응 함께 춤’ 행사에는 본아트컴퍼니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대표적 무용단체가 참여하였다. 이인기 대표가 운영하는 ‘세종시티발레단’, 김정환 대표의 ‘안다미로아트컴퍼니’, 한국무용장르에 ‘아토무용단’과 ‘풍경무용단’이 참여하였다.

지역소멸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세종시에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순수 무용단체가 상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민들은 이미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Color Full Run>은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순간, 어떤 색인가요?”라는 실존적 질문을 던지며, 자기만의 색으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각기 다른 색을 통해 개인의 내면과 삶의 순간들을 시각적으로 탐구하여,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정체성의 갈등과 자아 탐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각자의 삶의 색을 만들어가는 개별적 주체로서의 현대인을 춤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제8회 세종무용제에서 공연한 작품 <그곳에 오아시스는 없었다>는 관객이 스스로 찾아 공연을 관람하는 우수레파토리 작품이다. 작품 <그 곳에 오아시스는 없었다>에서도 실존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처럼 현대무용은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 내면의 갈등을 움직임으로 그 실체를 들어낸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무용은 형식을 탈피한 자유로운 움직임과 실험적인 요소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몸이라는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한국무용, 발레, 대중적인 댄스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우수레파토리 작품은 귀하다.



본아트컴퍼니의 활동은 세종시에서 정주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12월 24일에 개최되는 ‘세종빛축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공연에 많은 세종시민들이 참여하여 본아트컴퍼니 공연을 보며 행복한 연말이 되길 기대한다.

글_ 임수정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세종시의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 세종 FM 98.9 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 살롱 (유튜브 : 세종FM)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의 시설 명칭 -> 고유어로 변경

- 복합커뮤니티센터 -> 행복누리터
-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 우리농산물가공지원센터
- 도토리파크 -> 도토리공원
- 직장맘지원센터 -> 직장여성지원센터
- 여성플라자 -> 여성활동지원본부
- 세종형 쉼어하우스 -> 세종형 공유주택
- 전의게스트하우스 -> 전의여행자숙소
- 세종묘목플랫폼 -> 세종묘목마당10

세종지역학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과 관련한 인물, 지리, 역사, 사회,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기관이다.

발행: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배포일 : 2024년 12월 23일(월) / 기획 : 이재민, 임수정 / 편집인 : 임수정